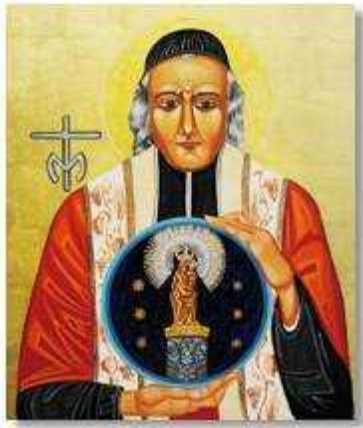


샤미나드 신부님과 함께하는 2011년 6월,
마리아와 선교교회



샤미나드 신부님은 현학적인 신학자가 아니다. 그분은 행동하는 분이셨고 영혼을 구하는 사목자이셨다. 그러기에 비록 그분이 마리아론이랄지 교회론에 한정하여 특별한 저서를 남기진 않았으나 확실한 것은 교회상을 정립하여 자기의 생각을 마리아와 연계시키셨음이 사실이다. 사십년 이상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마리아와 함께하는 교회상에 대한 산물이었다. 신부님께서서는 수많은 체험을 통하여 마리아를 관조하여 교회를 보셨으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연관되어 있는 마리아를 보신 것이다.

1) 마리아를 공경하고 경배함, 아니 그 이상의 예배행위 자체, **마리아를 현존시키는 교회의 예전(禮典)활동은 구성원들을 교회생활로 둘러 모은다.** 무엇보다도 이는 신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함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께 봉헌함은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는 과업이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나 그분의 무염동정이신 배우자께 드리는 경건한 봉헌에 임하여 감성을 일깨우신다. 그리하여 신도들은 이 특별하고 구별되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엄위로움을 도출해내길 갈망한다. 무엇보다도 성모의 무염시대(無染始胎)는 아주 독특한 경배의 대상이다. ...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아주 놀랍도록 행해져온 것으로는, 요즘 젊은이들로부터 경쟁적으로 일고 있는 바람과도 같은 것으로서, 봉헌 자체가 자신을 가장 순결하신 마리아 그분을 위한 봉사에 바치는 일이다. 정말이지 오늘날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Marian Writings 2, 388)

2) **교회 안의 마리아 현존은 항상 자모적(慈母的)이었다:**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인 관계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바로 이 덩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체이다. **마리아와 성령께서 신도들을 예수와 닮도록 형성해 주신다.** 교회사를 통틀어볼 때 마리아의 이 자모적 행위들으로써 신도들은 악과 맞서 싸우는 구원이 표상하고 있는 구체적 방법을 경험해 왔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태에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보전만을 위하여 진력하셨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마치 그녀가 우리에게 자신의 첫 아들을 내주실 때까지 아들을 모태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웠듯이 우리도 자기의 모태에 품으시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신다. 바로 사도의 아름다운 어귀처럼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갈라 4,19)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자 서원한 수도자들에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묵상을 중지시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여왕에 대한 감성과 이성이 제대로 밝혔는지 보실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낳아주셨는지 숙고해야 한다.”(MW 2, 659-660)

“마리아는 항상 어진 자모로서 승리 교회와 함께 해오셨다. 자비로운 품으로 감싸 안으시고 자신이 내리는 풍부한 은총과 충만함을 나누어 주셨다. 그녀 안에서 포로는 해방을 얻었고, 병든 자는 병이 나았으며;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위로를, 죄인들은 용서를, 의로운 이는 은총을 입었으며; 천사들은 기뻐 노래하고, 고결한 삼위(三位)께서도 영광을 노래하였다.”(MW 2, 389)

3) 구세사 전편에서, 아니 교회사 전편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볼 때, 마리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는 수많은 전투에서 고귀한 마리아의 위대한 승리를 겪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사악한 뱀 사이의 적대관계를 선포하신 이래(창세 3, 15), 마리아는 끊임없이 세속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기를, 모든 이단들이 거룩한 동정녀 발아래 무릎을 꿇었고, 점차 이들 세력이 침묵 속으로 잠적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공할 이단이 바로 종교적 무관심입니다. 이는 영혼을 이기주의의 우둔함으로 멍들게 하고 정욕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실망에 빠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리아의 힘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이런 이단을 예전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극복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녀는 뱀의 머리를 짓바술 창세기의 「여인」 바로 그 여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친을 일컬어 「여인」이라는 고상한 이름 이외 그 어느 이름도 언급치 않으신 예수께서는 그녀야말로 희망이요 기쁨이자 교회의 생명이며 지옥의 분쇄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녀에겐 위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난파선처럼 허물어진 신앙을 영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천국의 목표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호 아래 그분의 명을 수행하고 적대 세력과 맞서 싸우길 마다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가없는 섬김을 마리아님께 드리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분의 군대나 목자처럼 그녀의 기치 아래 모였고, 죽을 때까지 모든 힘을 발휘하여 그분을 돕고 지옥에 대항하는 성전(聖戰)을 불사하러 특별한 서원을 발하였습니다. 정모서원(定母誓願 Stabilitas)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표준과 이름을 취함으로 적법하게 수도단체가 봉헌되었듯이 우리는 그녀가 부르면 어디든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녀에 대한 신심과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펼치려** 마리아의 표준과 이름을 수도회 이름으로 취하였습니다.”
(L V-1163 - 1839년 8월 24일)

그녀를 도와 이 시대의 커다란 이단을 척결하는 투쟁에 혼신을 다하도록 마리아께서 직접 부르셨다고 믿는 우리는 생활규칙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제6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라는 말씀을 우리의 금언으로 적용하였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나, 우리의 고유한 소명이 이웃에게 신앙을 고취시키고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확신할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한 일반규범을 따르고 이에 더하여 우리가 발한 특별 서원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람들을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치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L V-1163 - 1839년 8월 24일)

“우리의 과업은 위대하고 찬연합니다. 이 과업이 보편적이라면 이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마리아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위임하시고 신임하십니다.(L V-1163 - 1839년 8월 24일)

4) 마리아의 표양을 따라 살아야 하는 신도들의 태도 말씀의 수용과 묵상 그리고 선포와 실현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는 그분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면 이유를 대지 말라는 뜻이다. 비록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이는 마치 마리아께서 ‘그분을 믿어라’라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리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 아들이 이르는 대로 하여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 바로 신앙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신심에 귀를 기울여 도움을 청하고 가르침대로 실행해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를 실행하는 일이 된다. 마리아 수도회의 정신은 바로 신앙 정신이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MW 2, 833-834)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읍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을 불태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점차 여러분이 성실성의 성장 정도에 따라 마치 그분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모친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이는 강생의 영원한 구원계획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인성(人性)을 취하여 강생의 신비를 성취하심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항상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경탄하여 마지않았던 바를 잠깐 다시 언급하면, 마리아가 강생의 신비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성부의 창조사업의 일익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활력적인 신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즉 성자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똑같은 신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배태시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 바랍니다.’(에페 3,17)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요한 1, 12) 이처럼 마리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신성의 온갖 보화가 바로 그분의 아들에게 나아가는 믿음과 병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초자연적 질서 속에서 그분을 잉태할 능력을 지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읍시다. 그 믿음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L V-1271, 115-116)

5) 마리아는 갈바리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형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산으로 가리다.’(아가 4, 6) 많은 사람들을 타볼 산으로 급히 오르도록 하자.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하신 말씀을 하게 하자: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마태 17, 4) 또한 나는 몰약 산을 갈바리에 비유하고 마리아의 모범 대로 살기를 권고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러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입니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 25-27)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는 바로 마리아이다. 그러기에 나는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 시나이 산보다도 더 참혹한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슬픔과 비애에 나를 송두리째 맡기고자 한다. 마리아로부터 선택받은 자 그 누가 이 일을 마다할 것이며 순교자들의 모후이시고 통고의 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마리아는 갈바리에서 슬픔의 예리한 칼날을 맛보셨다. 그녀는 구원의 동반자(coredemptrix)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수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인류는 그 열매를 얻었다. 마리아가 곧 교회를 표상한다. 마리아는 갈바리의 십자가 발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사실로 마무리 하신 것이다.”(MW 1, 214)

묵상 내용

1. 귀하의 생활에서 겪은 마리아의 현존을 간략하게 회상할 것
2.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귀하가 교회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3. 마리아의 어떤 측면이 귀하에게 가장 매력적인가?
4. 마리아와 함께하는 귀하의 소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